

사·부·대·중

신록의 뒤에는



노귀남 (협성대 강사·국문학)

흔들리는 쟁년기의 눈에 그것은 경성(靑靑)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5월의 신록은 이렇게 내게 왔다.

수풀이 하루하루 새로 움은 그 근본 줄기와 뿌리가 낱고 늙어 있음에서 왔다.

그런데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고 아름다운 겉모습에 집착하며, 불황 속에서도 성형외과가 성업이라고 하니, 늙어가면서 점점 마음까지 썩어가고 가난해 지게 생겼다.

의식주의 생활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드디어 육신까지 탈자연하여 가니, 장차 인조인간은 자연인의 땅을 피ող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 왕국을 거쳐 건설할 날이 멀지 않았나?

이런 비극은 이미 공상과학영화에서 많이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새것과 젊음의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살피지 않고 있다.

내 삶이 자연을 잃어버린 땅에 역사의 줄기와 뿌리가 잘린 생명 없는 것으로 타락하고 말, 허망한 꿈을 꾸고 있지 않은지, 싱그러운 신록이 자꾸 물어본다.

요즘 아이들 놀이는 자연과 흙을 잃어버렸다. 일상에서 계절 감각을 느낄 일도 별로 없다. 이것이 불행인지 아닌지도 아무런 자각이 없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 생노병사의 자연 순리에 따르는 삶의 의미가 우습게 보이게 되었다. 끝없이 기계론

황 속에서도 돌두하여 '테크노피아'를 지향하는 인간에게 인간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느 날 앞산 자락에 앉은 우리 아파트 창문에 비친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벼들과에 속하는 백양나무들 수십 그루가 어느 새 신록을 입고 춤추고 있었다.

이곳에 산 지 십 년이 넘었는데, 늙은 나무가 하루아침에 신선한 얼굴로 확 들어오긴 처음이었다. 겨우내 빈 가지로 떨고 있던 나무에, 어디로부터 온 기운인지 연둣빛 실눈이 여기저기 움트면서 검은 가지를 깨어나더니만, 한 순간 신생의 숲을 눈앞에 토해냈던 것이다.

불룩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들에

“맑은 물 푸른 산 숨쉬는 갯벌 만들자”

인터뷰

지난 2월 16일, 지리산 천왕봉에선 아주 특별한 산행의 시작을 알리는 모임이 있었다. 이념과 지역 그리고 종교의 다름에서 비롯된 반목과 대립을 화합으로 돌려 놓기 위한 백두대간 종주 발대식이 열린 것이다.

단순히 산이 좋아 산에 가는 일이 아니었다. '맑은 물 푸른 산 숨쉬는 갯벌'을 기치로, 수경 스님(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 공동대표)과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은 100일 기도를, 그리고 연관 스님(화엄학림 학장)은 백두대간 종주에 나선 것이다.

마침내 지난 4월 29일, 두 조각으로 나뉜 조국의 현실이 더 이상의 발걸음은 허용치 않는, 남한 지역 백두대간의 최북단 향로봉 정상에 섰다. 눈발을 헤쳐나와 들꽃을 만나기까지 72일 간의 대장정을 원만히 회향한 것이다.

과연 무엇이 연관 스님으로 하여금 승복 대신 등산복을, 바랑 대신 배낭을 짊어지고 백두대간을 걷게 했을까? 실상사 수월암에서 연관 스님을 만나 백두대간의 의미와 종주를 마친 소감을 들었다.

백두대간 종주 마친 연관스님

—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특별한 동기 같은 건 없었나.

▲ 원래 산을 좋아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할 생각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지리산살리기 국민운동이 지리산담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그 힘을 새만금 살리기로 옮겼다. 나도 그 일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환경운동이란 게 뭔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청정국토 가꾸기일 텐데, 그럴려면 우선 우리 국토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백두대간을 온몸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일제를 거치면서 산맥이 우리 고유의 지리 체계를 밀어내 아직도 혼란을 부른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긴 했지만 피상적인 수준이다.

산맥 체계의 가장 큰 오류는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의 터전으로서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질 구조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속히 극복돼야 할 일제 잔재다.

국토실상 제대로 알자

또한 모든 지리 공간은 역사·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지리산의 경우, 8·15광복 이후 6·25를 거치면서 수많은 목숨들이 빼돌 물었다. 한이 서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리산은 전남·전북·경남에 걸쳐 있다. 이것이 이번 백두대간 종주에서 지리산 좌우의 희생자 해원상생 천도제(5월26일)와 지역 화합을 기원하게 된 소이다.

— 백두대간이란 무엇인가?

▲ 한 마디로 우리 국토의 등뼈다. 백두대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줄기가 바로 백두대간이다. 지도상 거리로 약 1,600km에 이른다. 동으로 1정간과 서남으로 13정맥이 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다. 1대간 1정간 13정맥, 이것이 이 땅의 실체다. 이러한 지리 인식은 오늘 날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8세기 조선의 실학에 바탕을 둔 것이고 여암 신경준(1712~1781)에 의해 집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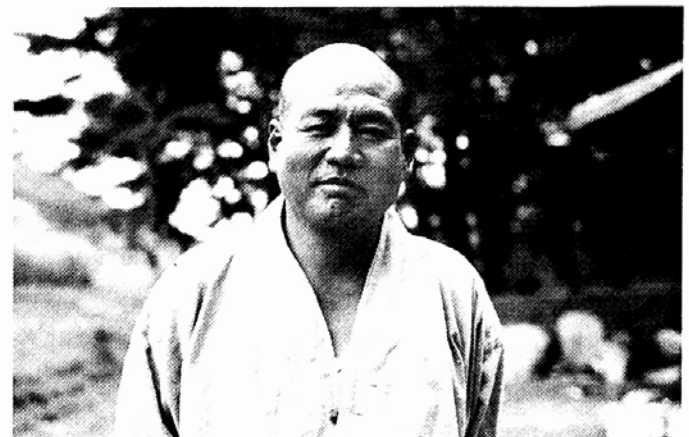
“환경운동=생명 공존” 무분별한 개발-훼손 삶의 공간 없애는 꼴

— 몸으로 백두대간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많았을 것이다. 고통과 화열, 보람만큼의 아쉬움이 뒤섞였을 것 같다.

▲ 걸고 또 걸다 보면 환희심으로 가득 차오를 때가 있다. 철쭉 같은 밤에 오히려 더 선명한 별무리를 만났을 때나, 들꽃 만발한 능선을 지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잠긴다. 간접 체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다.

가장 가슴 아픈 점은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의 흔적이다. 특히 후평령 지나 금산의 채석장, 백복령 지나 자병산은 석회석 채취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생명의 보금자리로서의 면모를 잃어간다는 사실



◇지도상 거리 640km, 실제거리 1200km로 3천리에 가까운 남한 지역 백두대간 종주를 마친 연관스님.



◇백두대간 종주단(단장 연관스님)은 지난 4월28일 강원도 진부령에서 백두대간 종주 회향식을 가졌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박기성 대장, 연관스님, 김옥철 대원.

이다. 예전에 비해 숲은 많이 우거졌다. 이에 비해 동물 종은 너무 빈약하다. 이런 현상을 생태 전문가들은 명치는 큰데 허약한 아이에 비유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했다. 그래서인지 설악산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황구렁이를 만났을 때는 대단히 반가웠다.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안정된 생태계의 가치는 돈으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이다.

깊은 산골짜기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소비 수준에 비해 환경의 식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줄길 줄 모르고 뒤뚱이 산을 오르내리는 것도 민망한 산행 문화다. 빨리 다니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을 망친다는 말이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은 자연에 기대지 않고 살 수 없다. 또 호연지기를 키우고 심신의 피로를 달래는데 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는가. 무조

건 가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자연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지 않을 적절 수준의 통제와 분산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쓰레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좁은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버리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사실 백두대간을 종주한 사람은 많다. 대단할 것도 없고. 하지만 이번의 종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국토나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감등이나 분단현실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자연에 기대어 사는 인간

지리산이나 설악산 아니면 산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태도를 더 고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기호를 다양화하고 제도적으로는 적절한 통제와 분산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쓰레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좁은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버리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남편=윤제혁 기자

목탁소리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조계종이 나서면 달라이 라마의 연내 방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와 달리 외교통상부와 정세균 총리의 전향적으로 변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도 방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방한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조계종이 지난해처럼 이도 저도 아닌 반응을 보일 경우, 외교 당국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이며 방한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 분석도 내놓았다.

현재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곳은 청와대 비서실로 알려져 있다. 반면 외교통상부 실무자에서는 아직 반대 입장에 다소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 천년민주당 연동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방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달라이 라마 방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총무원장 스님이 방한준비위 고문의 중진스님들

달라이 라마와 조계종

이 제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달라이 라마의 방한운동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심지어 일부 스님들은 방한준비위에 관계하는 모 스님이 차기(또는 차차기) 총무원장을 노린다며 음해할 정도로 종단내 여론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 티베트를 잘 아는 일부 스님들의 경우, “방한준비위가 해산하면 그때 달라이 라마를 초대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처럼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조계종이 지금까지처럼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경우 올해도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어려울 전망이다.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에서 보듯, 그의 방한은 불교 홍보에 엄청난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종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스님들이 한국에 그만한 고승이 없느냐며 그의 방한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불교의 소아적인 발상 내지, 아만심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때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늄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으로 지금까지



(TV에서 심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 조 의 료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한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든든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 출신식(2개월 50만원), 순효수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지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2개월 150만원), 유행산성(2개월 50만원), 유행원성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62세의 비구니로서 중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품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순선식(松仙食)」, 「순효수정액(松醇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은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 (전화 053-655-3027) 최형정님 올림